별첨자료

1. MOU 4개 업체 소개

이번 제 2차 데모데이에서는 지난 제 1차 데모데이와 핀테크 지원센터 멘토링을 통해 선정된 핀테크 업체들과 금융사간 MOU 체결식이 열린다. 핀테크 업체는 위즈도메인, (주)핀테크, 더치트(주), 이리언스 4개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4곳 업체들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위즈도메인 - 현대증권 MOU

특허가치 평가 솔루션, IP(특허)빅데이터로봇

현대증권과 6월부터 서비스제공

<사진 : 위즈도메인 제공>

위즈도메인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특허번호만 입력하면 특허의 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IP빅데이터로봇'을 선보였다. 이 로봇은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기술가치와 시가총액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술력 대비 저평가 종목을 선별,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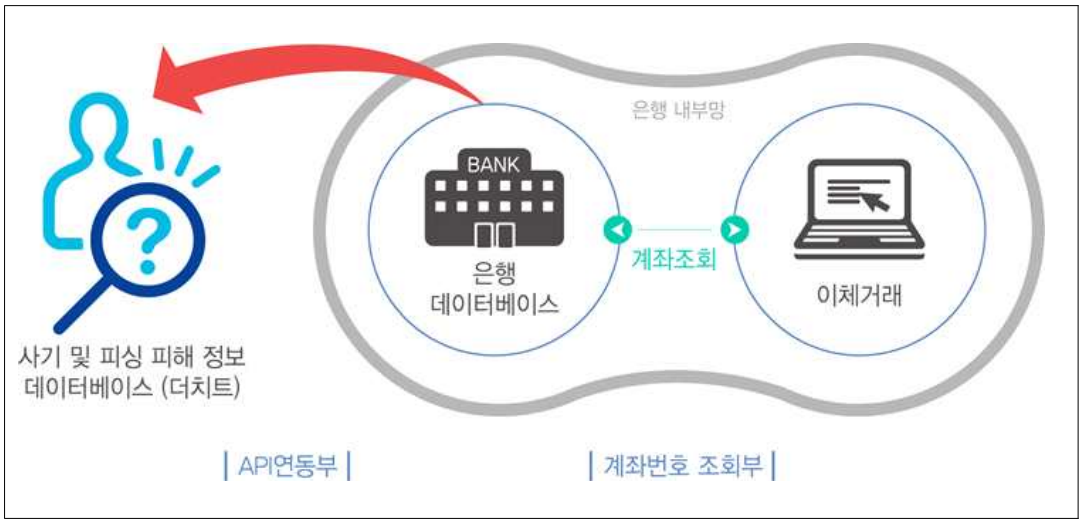
또 'IP빅데이터로봇'을 활용할 경우 기업의 R&D 성과측정이 수월해 지는 것은 물론 기업간 M&A시 기업가치 산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대증권은 위즈도메인이 고안한 PTR(Price Technology Ratio)이라는 지표를 활용하여 자체자금으로 하반기부터 주식투자를 실시하기로 위즈도메인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지난 1999년부터 특허 분석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국내외 500여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3년전부터 'IP빅데이터로봇'을 개발 시작해 일찍이 특허분석기술에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위즈도메인은 이번 2차 데모데이 MOU에 앞서 현대증권과 협약을 통해 PTR(Price Technology Ratio)이라는 지표를 활용해 자체자금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식투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 더치트(주) - 우리은행 MOU

은행 고객을 위한 사기피해 방지 솔루션
금융사기 거래 꼼짝 못하게 하는 '사기피해 방지 솔루션'



<사진 : 더치트 제공>

계좌이체를 매개로 발생하는 개인 간 물품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치트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정보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를 2006년부터 운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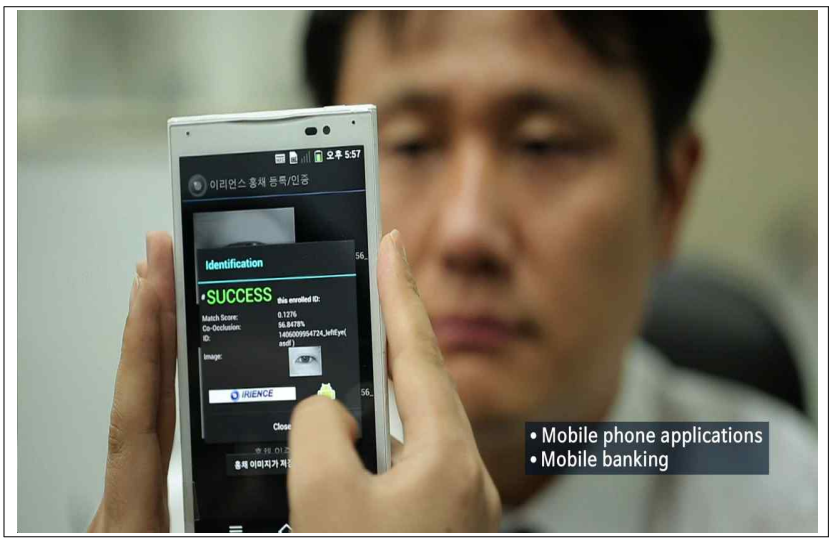
이 회사는 금융사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좌이체 과정에서 송금하는 고객에게 수취 계좌의 금융사기 피해 이력을 미리 안내해 주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놨다.

그동안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었으나 기존의 솔루션은 피해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대책이었던 반면에 더치트의 솔루션은 피해발생 이전에 대응하는 사전대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더치트 김화랑 대표는 "사기피해 방지 솔루션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가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은행은 범죄 방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고, 피해 민원의 감소에 따라 경찰의 검거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리언스 - 기업은행 MOU

홍채활용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
눈 깜박이면 결제 완료, '홍채 인식 기술'



<사진 : 이리언스 제공>

생체인식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보안성을 보이는 홍채를 활용해 핀테크의 보안을 해결하려는 기업이 있다. 지난 4월 제 1차 데모데이에 참여한 이리언스는 홍채인식 결제 시스템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리언스가 선보인 홍채 인식 기술은 인증센터와 연동해 홍채 등록된 사람만이 POS로 결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본인 등록을 통한 로그인, 자금이체 등이 가능하다.

황정훈 이리언스 본부장은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안 제정과 관련해 당사의 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며 "당사의 핀테크 기술은 표준안에 맞춰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미 당사와 한국정보통신(KICC)은 생체인증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고 멘토 금융기관과 함께 성공적인 핀테크 기술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리언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고리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모든 기술을 내재화한 국내 토종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주)핀테크 - 하나은행 MOU

빅데이터분석으로 개인의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인 "소셜 신용평가" 시스템

<사진 : (주)핀테크 제공>

(주)핀테크는 대출신청고객의 다양한 데이터를 IT기술로 수집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선보였다.

이 평가모델은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업자의 실시간 매출현황과 판매상품에 대한 SNS상 평가 및 리뷰, 개인의 소비패턴 분석, SNS 활동현황 및 작성된 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향을 파악해 사실여부(Fact Check)를 확인한다.

수집된 정보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대출신청 고객의 대출 가능여부 및 한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 평가된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은 기존 신용평가 모델 외 별도의 평가모델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자료수집부터 평가까지 모두 IT기반 기술로 처리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기존 신용평가 모델은 개인의 지난 과거만 평가에 적용됐던 반면 (주)핀테크의 '소셜 신용평가 시스템'은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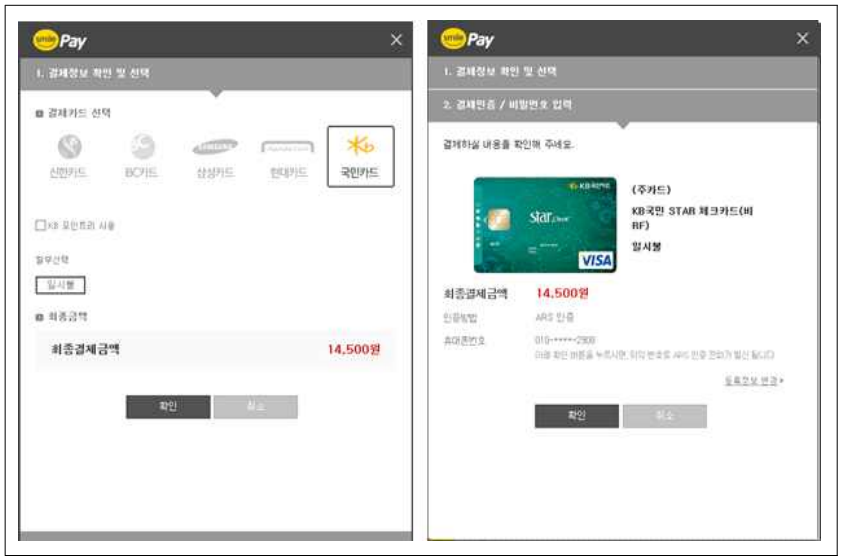
(주)핀테크 김우식 대표는 '소셜 신용평가'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 심사시 간편화 시스템 구성, 신개념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접목이 가능하다"며 "해외시장에도 신용평가 모델로써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2. 데모데이 참가 업체 소개

이번 제 2차 데모데이에는 인비즈넷 주식회사, 웹케시, 두나무, 뉴지스탁, (주)파이브지티, (주)엠앤엔즈코리아 등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받았다. 간편한 결제·송금 시스템에서부터 증권,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기술들이 돋보였다. 특히 이번 제 2차 데모데이는 영국 벤처투자자, 금융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IT 강국인 국내 핀테크 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짐작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인비즈넷 주식회사

간편결제와 인증의 2채널을 통한 간편결제 및 본인인증 솔루션
휴대폰 ARS를 통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끝 '링투페이(ring2pay)'



<사진 : 인비즈넷 제공>

인비즈넷 주식회사는 휴대폰 ARS를 통해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안전하고 간편한 2채널 결제 서비스, '링투페이'를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인터넷(PC또는 Mobile)에서 주문하고, 휴대폰 ARS 통해 비밀번호 입력하면 결제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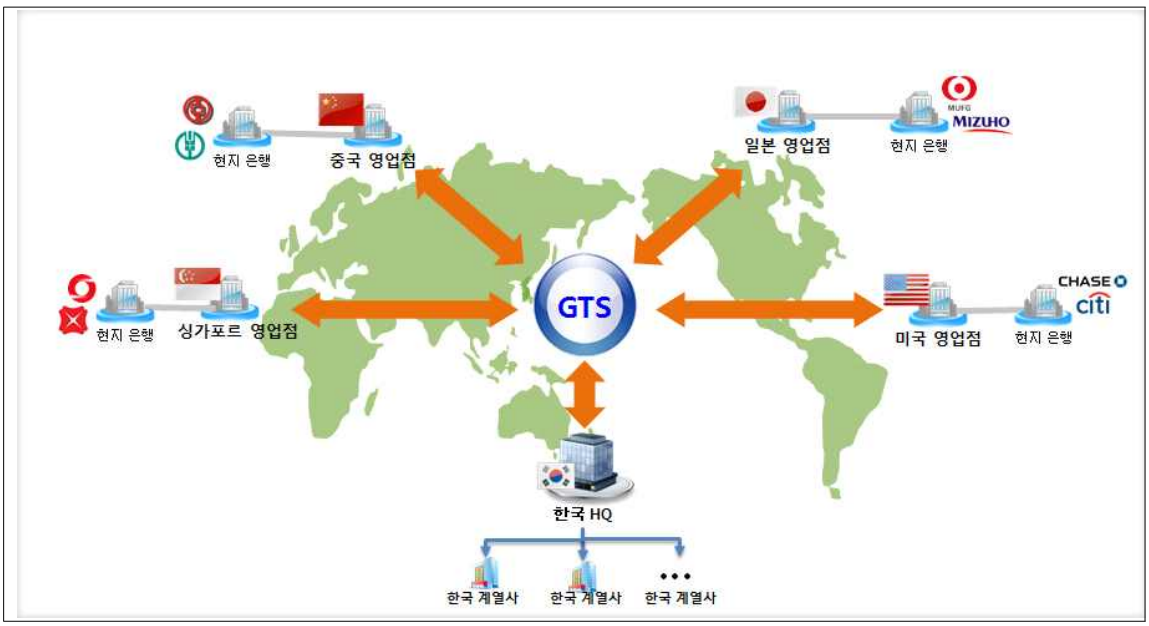
특히 이 솔루션은 ActiveX, .exe 및 앱 설치가 없기 때문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어떤 기종 또는 브라우저에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링투페이 결제는 핀테크 산업이 부상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엑티브X'의 대한 문제점과 불편함을 단번에 해소함으로써 간편성과 보안성까지 충족했다는 평가다.

'링투페이'는 현재 오픈마켓 'G마켓', '옥션' 등에 서비스 제공 중이며 향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인비즈넷 정현철 대표는 "핀테크는 최고의 기술과 보안이 바탕 되어야하지만, 고객에게는 간편해야 한다"며 "휴대폰 ARS 통해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것은 IT지식 소외계층에게도 친숙하기에 가장 대중적이며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 웹케시

글로벌 기업(B2B)을 상대로 한 통합자금관리 시스템
금융기관과 상생하는 핀테크 모델
'Multi Bank Solution', 'Global Treasury Solution'



<사진 : 웹케시 제공>

웹케시는 B2B 핀테크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MBS(Multi Bank Solution), GTS(Global Treasury Solution)을 선보였다. 먼저 MBS는 중소규모의 해외 진출 기업 및 해외 현지 기업을 위한 글로벌 통합계좌관리 서비스로서 여러 은행의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한 화면에서 조회 및 집금/배분업무를 실행한다.

또 GTS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들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원화/외화 자금 집행, 외환위험관리,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일마감, 다국어보고서 지원 및 ERP시스템과 연계하여 전표처리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 회사는 현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19개 국가, 100여 개 금융기관을 연계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글로벌 자금관리 시스템을 서비스 중이다. 또 웹케시는 IBK기업은행에 시스템을 도입해 해외 공동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하나/외환, 국민은행에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MBS 및 GTS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상생 모델로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 두나무

증권앱과 소셜요소 결합 어플

모바일에 특화된 투자, 정보공유 서비스 '증권플러스'

<사진 : 증권플러스 제공>

두나무는 2014년 '증권플러스 for Kakao' 런칭 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중 하나다. 증권앱과 소셜요소를 결합한 어플, '증권플러스'는 사용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서비스로 눈길을 끌고 있다. 작년 5월 런칭했으며 한국 유일 소셜 주식거래 서비스로 런칭 후 누적 회원수 40만, 일일페이지뷰 1,800만, 월 활성사용자 15만을 돌파했다.

'증권플러스'는 종목 시세 파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 친구들 간의 정보 공유 등 소셜기능까지 강화한 모바일 증권 서비스다. 홈 화면에서 관심 종목의 주식시세를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심분야를 지정해 놓으면 그룹에 추가한 종목들과 연관된 뉴스만 자동으로 모아 보여준다.

또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친구들의 관심 종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설정한 종목 주가에 도달하면 전달받을 수 있는 알림 기능을 도입해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러 분야와 제휴를 통해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능해 서비스 다각화가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 뉴지스탁

계량적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종목분석 솔루션

개인의 성공적 주식투자를 위한 주식분석 서비스 제공.

<사진 : 뉴지스탁 제공>

뉴지스탁은 개인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퀀트(금융공학) 분석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주는 종목은 전체 상장 종목의 25%정도만 제공되어, 다양한 종목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뉴지스탁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상장된 모든 종목을 5분 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 아래 개발됐다.

뉴지스탁은 퀀트를 기반으로 한 주식분석 시스템을 갖춰 전체 1,900개 종목 정보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 종목 모델포트폴리오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계량지수 등의 데이터 기반 종목 분석이 이뤄져 객관성을 유지한다.

또 랭킹 시스템과 롱텀차트를 제공하는 것도 뉴지스탁의 특징이다. 장기 투자자를 위한 롱텀차트는 주가가 기업의 실적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현상을 이용해 매수매도 타이밍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주가의 역사적 고점과 저점을 찾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타이밍'을 제공한다. 뉴지스탁은 현재 중국 주식시장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으며, 베타 버전을 6월 중에 오픈 할 예정이다.

□ (주)파이브지티

내 얼굴을 비밀번호로 1초 인식으로 완벽 보안을 꿈꾼다.
편리한 사용성, 완벽한 보안 얼굴인식 '유페이스키'

<사진 : (주)파이브지티 제공>

(주)파이브지티는 신체의 여러 가지 본질적, 또는 내재적 특징에 기초하여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 중, 얼굴인식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회사가 선보인 '유페이스키'는 단말기에 얼굴을 인식해 문 열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얼굴이 곧 열쇠로, 화면을 바라보기만 하면 1초 이내에 인증과 함께 문이 열린다.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눈·코·입 등 수 만개의 얼굴 특징을 분석하기 때문에 쌍둥이 구별은 물론, 살이 찌거나 안경을 껴도 정확히 인식해 99.8%에 달하는 인증률을 자랑한다. 이 회사는 ADT캡스와 계약을 맺고 3년간 현장에서 모든 실험을 거쳐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했다.

곧 출시 예정인 지티캅(GTCOP)은 '얼굴인식 위급상황 경보 시스템'이 내장된 제품으로 위급상황 시 나타내는 표정을 경찰에 전송, 출동까지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파이브지티는 지난 4월 15~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 서부 보안기기 전시 및 콘퍼런스 2015(ISC WEST 2015)'에 참가해 지티캅을 선보였다.

얼굴인식은 가장 친숙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방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브지티의 정규택 대표는 "창조경제 선두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이브지티가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에 기여하는 기업으로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주)엠앤엔즈코리아

결제수단의 무한확장, 배달 대행 플랫폼 '클라우드 POS'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분야가 확장되면서 배달어플의 등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엠앤엔즈코리아는 온라인 배달 주문을 오프라인 영역에서 대응하는 O2O 배달대행 플랫폼을 선보였다. 기존 배달어플은 광고비용을 지불한 특정 메뉴만 노출되는 반면 이 플랫폼 이용자는 대부분의 메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광고비 대신 POS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배달앱에 자동 게시되고 광고 게시 결정권이 POS 이용자에게 있어 유저들의 스트레스를 줄였다. 또 결제단말기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필요 없이 서버측 보안응용모듈(SAM)을 통해 결제수단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밖에도 즉각적인 결제인프라 구축, 비재무적 신용평가 빅데이터 활용 등 신규 서비스에 능동적인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엠앤엔즈코리아 허성택 대표는 "핀테크 기업들의 비지니스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 위에서 완성된다"며 "배달대행플랫폼 제공자로서 핀테크 기업들에게 일반 이용자가 늘 이용하는 음식점, 슈퍼 등 일상의 영역까지 핀테크 영역으로 확장하는 역동적인 결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